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

전기·수소차 등 집적 효율 극대화  
밸류체인 형성 생태계 확장 주력  
인공지능 기반 기술개발 가속도

광주시가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가 성공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빛그린산단 인근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곳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산단은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미래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15일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 성공과 관련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태무 기자

참여, 19개 지자체와 서면평가, 현장조사, 종합평가, 최종심의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신규 국가산단을 따냈다.

광주시는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광주시는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신규 산단

을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성해 기존 빛그린산단 및 진곡산단과 연계하고 연관 산업들을 융합해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가운데)가 15일 오전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 강필구 협의회장(오른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본지 김선남 대표, 전남시군의장협의회 '감사패'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5일 오전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민이 꿈꾸는 희망의 내일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제 279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22개 시군의회의 의장들로부터 큰 상을 받게 돼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낀다"면서 "시군의회의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 수레 바퀴로, 지역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소통과 상생을 이끌고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이 자리에서 강필구 협의회장은 전남지역 각 시군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면에 상세히 게재해 지역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지는 올해 초부터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의 '2023 새해 설계'를 연재한 것을 비롯해 각 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소개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지역발전을

## 전남, '우주발사체' 첨단산단 선정

고흥에 앵커기업·연구기관 입지  
생산유발 4조9천억 등 경제효과  
우주센터 클러스터 연계 시너지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가 이날 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단은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2030년까지 3,800억원을 들여 173만㎡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그동안 공공·민간의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사체 제조 기술과 기업 육성, 우주산업 기반시설 확장, 기업 입주 공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국가산단에는 우주발사체 조립·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과 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국토부 평가에 적극 대응한 것이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단이 조성되면 우주발사체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전남도가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 같은 성과는 고흥에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있고, 지난해 12월 우주센터 일대가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이와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 조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나로 우주센터 일원이 포함된 것으로, 앞서 확정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 버스·지하철도 20일부터 '노마스크'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시의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

대중교통과 더불어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서울=강병운 기자

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

#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

4.28 금 - 30 일

수원메세 수원역

